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66명 전문가들, “미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 둔화 긍정적”
- TheEconomist: 여전히 미국의 생산성이 세계를 주도한다

[미국 금융]

- Bloomberg: 주요 중앙은행들, 더 이상 연준 따라 하지 않는다...영향력 감소
- WSJ: 월가 은행들의 실적이 의미하는 3가지
- WSJ: 모건 스탠리 3분기 예상 수익 상회
- WSJ: 엔비디아, 빅 테크 어닝 시즌을 다시 지배한다

[미국 대선]

- Bloomberg: 트럼프, '관세 올리기와 연준에 영향력' 옹호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6.52%까지 상승...8월 초 이후 최고치

[오일]

- TheEconomist: 유가, 어디까지 오를까?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럭셔리 업계, 마지막 성장 동력이 멈췄다
- CNNBusiness: 약국 체인들이 문을 닫는 이유
- Bloomberg: 도요타,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AI 로봇 개발 협력
- Bloomberg: 현대 엘라베마 공장이 현대의 미국 성장 주도
- Bloomberg: 아우디, 전기차 공장 문을 닫을 수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What 66 Economists Say About Where the Economy Is Headed, in Ch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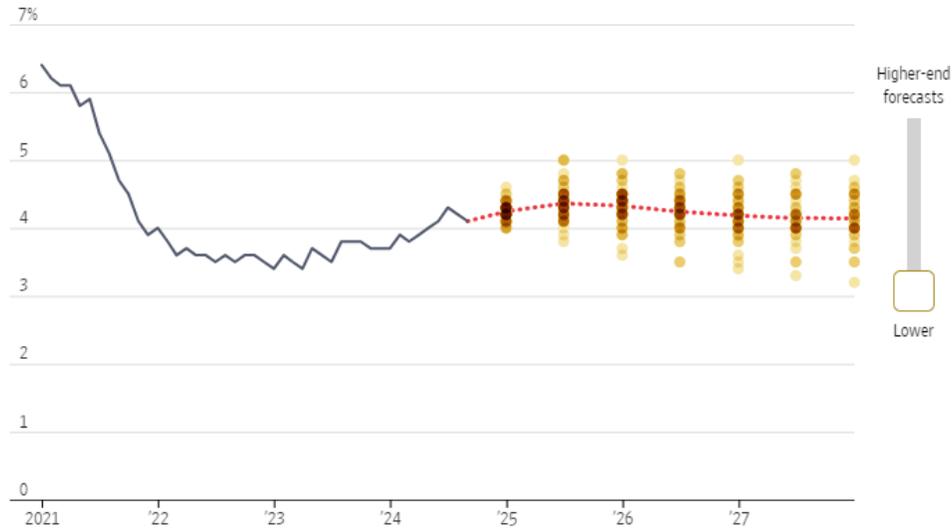
66명 전문가들, “미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 둔화 긍정적”

- 월스트리트지가 66명의 비즈니스 관계자와 이코노미스트들 상대로 설문 조사 한 결과, 미 경제 전망이 3개월 전(올해 7월)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 이들은 실업률이 9월에는 4.1% 였는데, 올해 말에는 4.2%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 매월 일자리 성장도 향후 12개월간 매월 13만4천개로 이전 조사와 별 변
동이 없었다.
- 결론적으로 이들은 노동시장이 추가로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업
률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또한 낮은 금리 인하 조치가 의도한 효과를 보일 것이며, 올해 7월 전망과
는 달리 올해 말까지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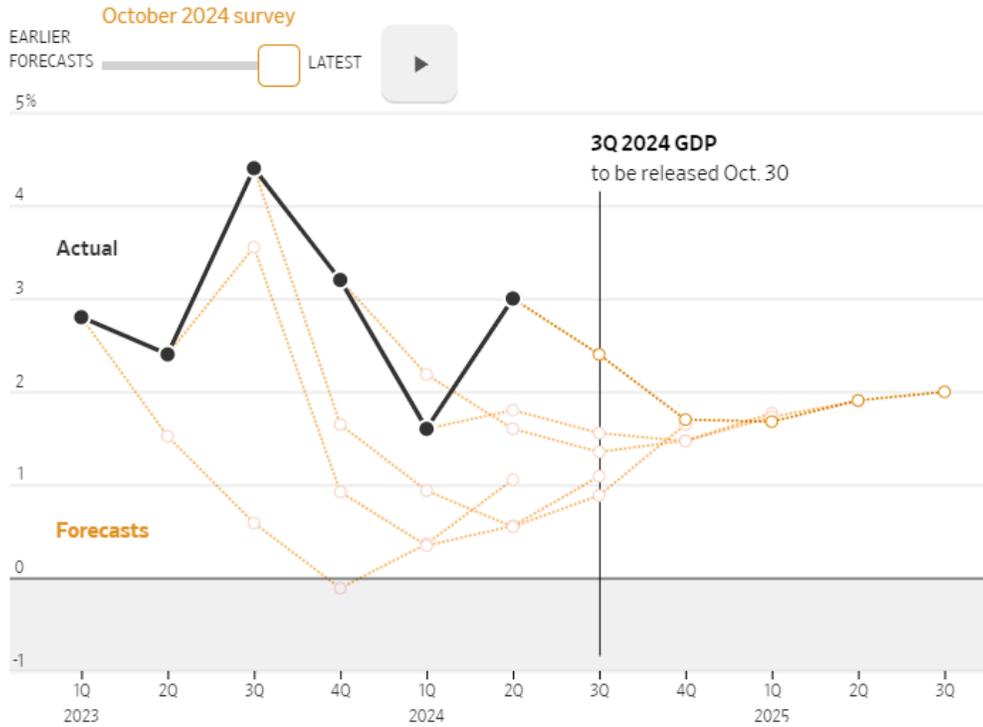
Unemployment rate, with economists' forecasts

● Individual forecast Average forecast



Note: Actual unemployment rate is seasonally adjusted. For forecasts, darker shades indicate overlapping dots.
Sources: Labor Department (actual); Wall Street Journal survey of economists (forecasts)

GDP growth, with economists' forecasts over time



Note: Chart shows annualized change in real GDP from a quarter earlier, seasonally adjusted, and average forecasts among survey respondents.
Sources: Commerce Department (actual); Wall Street Journal survey of economists (foreca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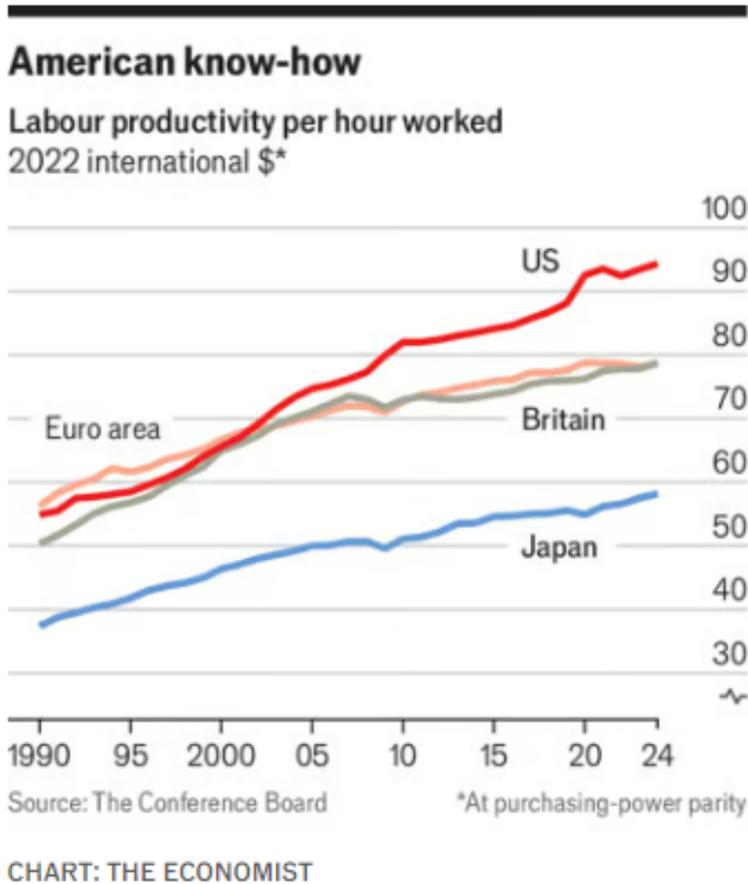
WSJ 기사

TheEconomist: American productivity still leads the world
여전히 미국의 생산성이 세계를 주도한다

- 미국 경제의 뛰어난 성과는 미국의 생산성 덕분이다. 미국 근로자는 올해 평균 17만1천 달러의 경제적 생산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12만 달러, 영국의 11만8천 달러, 일본의 9만6천 달러와 비교된다. 1990년 이후 미국 노동 생산성은 70% 증가했다. 역시 유럽의 29%, 영국의 46%, 일본의 25% 증가보다 훨씬 앞선 수치다.
- 이 같은 생산성 우위를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자본 투자이다. 미국은 고속도로, 창고, 소프트웨어 같은 수단(tool)을 더 많이 갖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비주거 투자(주거용 부동산 외의 모든 유형의 투자)는 GDP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연구 및 개발(R&D)에 투자한다. 미국 GDP의 약 3.5%가 R&D에 투자되며, 이스라엘과 한국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이 투자하는 것이다.
- 두 번째 요소는 비즈니스 역동성으로 설명되는 미국의 경제 환경이다. 미국에서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기업의 비율은 매년 약 20%에 달한다. 유럽은 약 15%다. 이는 미국에선 오래된 기업이 해체되거나 신생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쉽다는 뜻이다. 미국은 노동 이직률도 높다. 이직은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기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직은 근로자, 기업가 및 투자가 더 생산적인 부문을 향하도록 만든다.

- 세 번째 요소는 미국의 디지털 집중 산업 부문의 뛰어난 성과다. 미국은 기술, 금융, 법률 및 컨설팅과 같은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
- 미국의 기술 우위의 근본은 혁신 생태계이다. 대학에서 시작해 많은 인재를 끌어모으고, 연구 지원이 풍부하며, 신생 기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 확장도 규제가 적어 쉽다.
- 또한 미국은 AI를 선도해 가장 큰 성장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AI가 10년 동안 전 세계 GDP의 7%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민간 부문 AI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인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도 AI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TheEconomist 기사

[미국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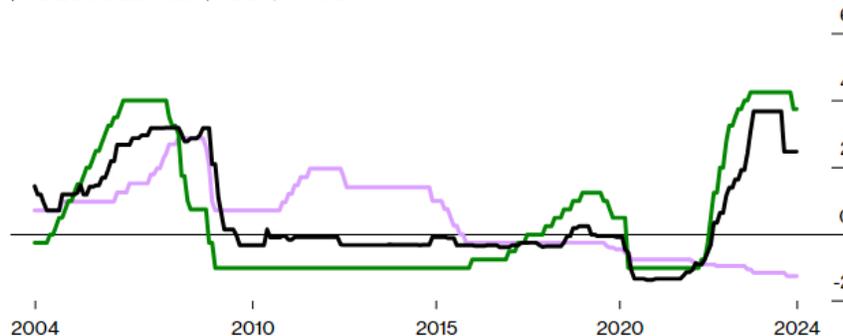
Bloomberg: The World's Central Banks Aren't Following the Fed's Lead Anymore
 주요 중앙은행들, 더 이상 연준 따라 하지 않는다...영향력 감소

- 많은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연준과 다른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 치솟았을 때 금리 인하가 늦었다. 유럽 은행과 영국 은행은 미리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이머징 마켓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에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올렸다.
- 글로벌 경제 구조가 변했다. 90년대에는 미국의 글로벌 GDP 점유율과 G7의 점유율이 21%와 50%였으나, 이제는 15%와 30%에 그친다.
- 과거에는 미국과 G7이 주요 결정을 했으나 이제는 G20으로 바뀌었다. 미국과 유럽을 한축으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축으로 한 갈등으로 G20도 영향력이 줄었다. BRICS 그룹 국가들의 등장도 눈에 띈다. 달러의 영향력도 줄었다. 중국 정부의 위안화 무역 결제 수단도 제로에서 전체 무역 규모 중에 25%로 증가했다.

Central Banks Are No Longer Marching to the Fed's Beat

Benchmark interest rate, shown as percentage-point deviation from long-term trend

— G-20 median rate — US — China



Sources: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Bloomberg, Bloomberg Economics
 Note: For Germany, France and Italy, the ECB's interest rate on main refinancing operations is used

Bloomberg 기사

WSJ: Three Big Takeaways From Bank Earnings
월가 은행들의 실적이 의미하는 3가지

- 최근 월가 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JP모건, 시티그룹, 웰스 파고 등이 말하기를 소비자들은 유연한 일자리 시장과 인플레이를 상회하는 임금 성장 덕분에 지출도 꾸준히 하고 또 순조롭게 융자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은행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와 수년간의 물가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몇분기 전보다 더 자신감을 가졌다.
- 물론 이들은 저소득층의 경우 생필품에 대한 물가 압력과 크레딧 카드 신용 비용 부담이 있지만, 인플레이가 낮아지고 저금리 덕분에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로 돈을 빌리지만 상환 속도는 다소 늦어져 일부 가구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 한편 은행들은 고객들은 올해 3분기 동안 그들의 저축을 더 높은 이자율을 얻기 위해 국채나 머니마켓펀드로 옮겼는데, 은행들은 저축 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 상환금이 늘어났으며 수익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WSJ 기사

WSJ: Morgan Stanley's Third-Quarter Profit Jumps 모건 스탠리 3분기 예상 수익 상회

- 모건 스탠리가 3분기 실적 보고에서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을 보여 주며 주식이 상승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는 7%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 2020년 11월 이래 가장 큰 폭의 랠리 수준이다.
- 수익은 32% 상승한 319억불로, 이는 예상보다 나은 주당 1달러 88센트를 의미한다.
- 은행 수입은 16% 늘어난 153억8천3백만불이다. 그리고 투자 은행 수익도 56%나 꺾은 14억630만달러를 기록했다.

WSJ 기사

WSJ: Nvidia Will Dominate Big Tech's Earnings Season Again 엔비디아, 빅 테크 어닝 시즌을 다시 지배한다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의 자본 지출은 계속 급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애플의 시로의 진출은 불투명하게 보인다.
-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은 올해 상반기에 1천62억 규모의 자본을 지출했다. 작년 동기간에 비해 49% 늘었다. 증가 폭의 상당 부분은 엔비디아 생산 칩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에 투입되고 있다.
- 자본 지출은 계속 증가해 올해 총 2,310억달러로, 작년에 비해 49%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올해 하반기에 끝나는 회계분기에 연간 비교로 97% 증가한 28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미국 대선]

Bloomberg: Trump Defends Tariff Plan While Pressing for More Fed Influence

트럼프, '관세 올리기와 연준에 영향력' 옹호

-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과감한 관세 올리기 정책과 연준과 직접 상의해 미국 경제를 바꾸려는 자신의 계획을 옹호했다. 그는 자신의 어젠다가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국가 부채를 늘린다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성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인터뷰에서 경제학자들의 ‘트럼프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비용을 소비자들에 전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관세 공약이 공급망과 소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가능성에 반대했다. 대신 제조업체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옮길 것이며, 합법적인 이민이 증가하고, 동맹국들로부터 분노가 아닌 충성과 신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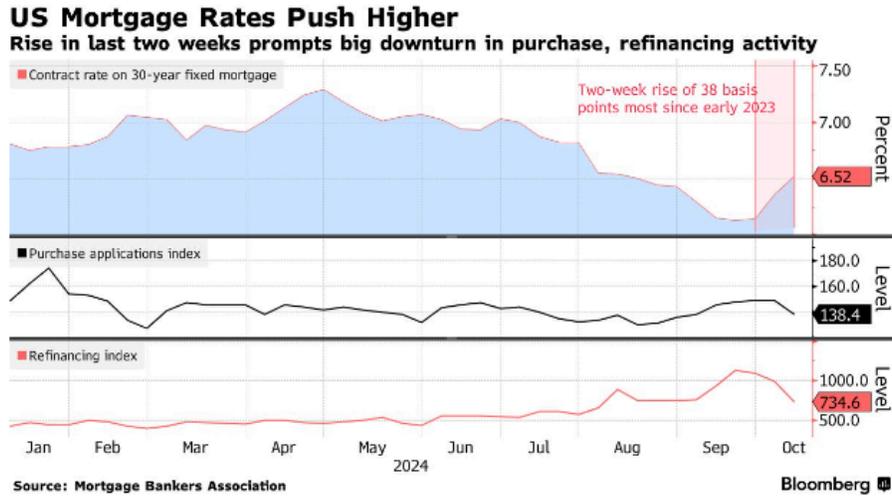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Climb to 6.52%, Highest Since Early August

미 모기지율 6.52%까지 상승...8월 초 이후 최고치

- 미 모기지율이 두 주 연속 급격히 상승해 8월 초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 모기지 은행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율은 10월 11일 기준 16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해 6.52%를 기록했다. 지난 두 주 동안 금리는 38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15년 고정금리 모기지율은 23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해 5.94%를 기록했으며, 이는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 미 모기지율은 미국 재무부 채권 수익률에 따른다. 강력한 고용 성장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줄어들면서 미 모기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 관계자들은 9월 빅컷 이후 천천히 금리를 낮추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높은 모기지율은 주택 구매와 재융자 활동을 막아 주택 시장의 빠른 회복을 어렵게 한다. 모기지 은행협회의 주택 구매 지표는 7.2% 하락해 2월 중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재융자 지수는 26% 이상 하락해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주간 감소 폭을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TheEconomist: How high could the oil price go?

유가, 어디까지 오를까?

- 유가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 원유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긴장은 매우 두려운 일이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가는 120달러를 넘어섰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고, 이란이 중동 석유의 주요 운송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면, 유가는 2022년 최고가에 가까워질 것이다.
- 다행히 지금은 2022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엔 석유 공급은 부족한데, 코로나19 봉쇄가 풀리면서 석유 수요는 급증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석유가 넘쳐난다. OPEC은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량을 감산했다가, 12월부터 다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전 세계 석유의 약 60%가 OPEC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다. 2019년 44%보다 증가했다. 미국의 셰일 가스 기업들이 가장 큰 생산자이고, 브라질, 캐나다, 가이아나도 최근 몇 년 동안 생산량을 늘렸다.
- 반대로 석유 수요는 낮다. 미국과 유럽은 금리 인상으로, 중국은 부동산 침체로 경제가 둔화되었고 석유 수요가 약해졌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America'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10월 8일, 세계 제조업 활동 약화로 2025년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트레이더들은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풍부한 공급과 낮은 수요가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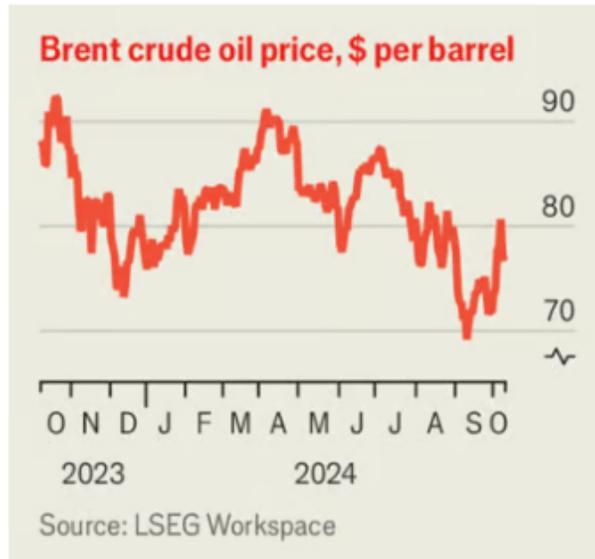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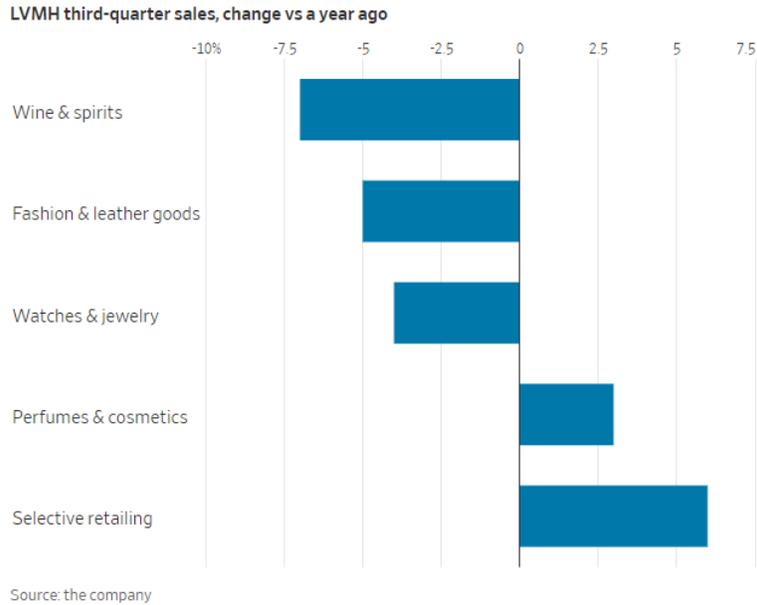
CHART: THE ECONOMIST

TheEconomis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Luxury's Last Growth Engine Has Stalled 럭셔리 업계, 마지막 성장 동력이 멈췄다

- 오늘 수요일 오전, 예상보다 좋지 않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LVMH 주가가 7% 하락했다. LVMH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인 패션 및 가죽 부문, 특히 핸드백 부문에서 작년보다 5%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 세계 럭셔리 판매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 중국의 부동산 위기 때문에 중국 중산층 소비자들은 수천 달러를 럭셔리 제품에 쓸 상황이 아니다. 또한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에 대응해 중국이 유럽 코냑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LVMH의 코냑 브랜드인 Hennessy는 중국이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역 갈등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국의 럭셔리 소비는 8월에 6% 감소했고, 유럽도 2023년 초 최고점을 찍은 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산층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9년에 비해 평균 가격이 60% 비싸졌다. 소비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선 브랜드들이 현실적인 가격대의 신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WSJ 기사

CNNBusiness: Why your drug store is closing

약국 체인들이 문을 닫는 이유

- CVS는 900개 매장, Rite Aid는 500개 매장, Walgreens는 1,200개 매장의 문을 닫을 계획이다. Walgreens의 경우 전체 매장의 14%의 문을 닫는 것이다.
- 1990년대와 2000년대 드러그스토어 체인들은 경쟁자를 몰아내고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확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 습관의 변화, 경쟁, 약국 산업의 변화로 매장 문을 닫게 되었다.
- Walgreens CEO Tim WenWorth는 “매장의 약 25%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절도 피해가 심하다. 온라인 등 경쟁이 증가했다. 1차 진료 제공자를 인수하는 등의 성장 전략이 실패했다. 이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Toyota Joins with Hyundai's Boston Dynamics on AI-Powered Robots

도요타,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AI 로봇 개발 협력

- 도요타 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AI를 갖춘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했다. 도요타 수석 과학자 Gill Pratt는 로봇을 공장 조립 라인과 노인 돌봄에 이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노동 비용 절감과 안전 강화를 위해 공장을 자동화하고 있다. 국제 로봇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 공장에 로봇을 배치하는 데 있어 전자 제조업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2022년 신규 설치의 약 25%를 차지했다.
- 보스턴 다이내믹스 CTO Aaron Saunders는 향후 몇 년 내 현대 공장에 인간형 로봇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요타 연구소는 로봇이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형 행동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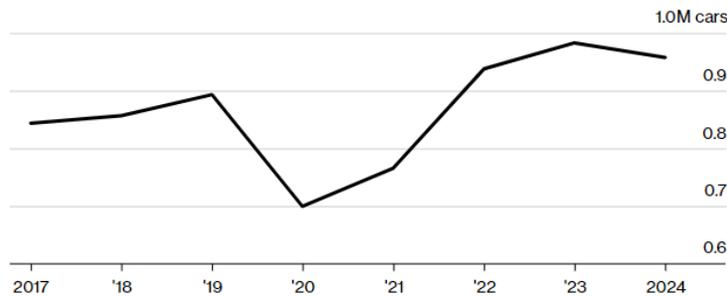
Bloomberg: Hyundai's Tarnished Alabama Plant Is Now Driving Its US Growth

현대 앨라배마 공장이 현대의 미국 성장 주도

- 현대자동차의 가장 생산적인 공장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인기 모델은 2023년 현대를 미국 판매 4위로 올려놓았다. 2005년 개장 이후, 이 공장의 직원 수는 두 배로 늘었고, 생산량은 25% 증가해 연간 40만 대를 생산한다. 현대는 미국에서 실속 있는 가격의 편안한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 현대의 전기차 판매는 테슬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전기차는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10월 3일 가동을 시작한 조지아의 새로운 전기차 공장에 76억 달러를 투자했다.
- 앨라배마 공장은 전 세계 다른 공장의 모델이 된다. 차량당 노동자 비율이 매우 낮고, 로봇이 많다. 거의 500개의 로봇을 이용해 16시간마다 한 대의 차량을 생산한다. 업계 평균인 최대 35시간보다 훨씬 빠르다. 현대는 앨라배마 공장을 고생산성의 발상지라고 자랑스럽게 부른다.

Hyundai Lifts Output

Annual production in US and Mexico for Hyundai, Kia and Genesis



Source: GlobalData
Note: 2024 data is forecast

Bloomberg 기사

Bloomberg: Audi Rejects All Offers For EV Plant Facing Potential Closure 아우디, 전기차 공장 문을 닫을 수도

- 아우디가 Brussels의 전기차 공장을 위한 적절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아우디 COO Gerd Walker는 화요일 특별 노사회의에서 공장 미래를 위한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개념을 제시한 투자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 아우디는 Brussels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 SUV의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우디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BYD 같은 경쟁자들도 전기차 수요 둔화, 저렴한 모델 부족 등의 이유로 비용 절감에 들어갔다.
- 벨기에 법에 따라 지역 공장 관리자와 노동자들은 폐쇄 위기에 처한 공장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아우디와 노동자 측 대표들이 공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대안들을 검토했지만,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은 없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예상 못한 강세'...금융사들, S&P 500 전망치 앞다퉈 상향조정 UBS, 골드만삭스, BMO 등 올해·내년 상승세 예상

미국 주식시장이 최근 예상치 못한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주요 금융사들이 앞다퉈 연말 주가지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BS의 조나단 골럽과 패트릭 팔프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5,800을 돌파하자 15일 연말 전망치를 올렸다.

기존 5,600이던 S&P 500지수 전망치를 5,850으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 말 전망치도 6,000이던 것을 6,400으로 올렸다. 향후 15개월 동안 S&P 500지수가 9%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UBS의 이번 상향조정은 작년 말 이후 네 번째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